

김영록 지사 “공모 방식으로 국립의대 입지 결정” 재확인

기자간담회에서 전남도 주도 공모 의지 강조...도민 신뢰 중요 “이달 말까지 전남 의대 신규 배정 200명 정부에 건의할 것”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 과정에서 공모를 통한 입지 선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순천대, 순천시가 공모 불참 의사를 밝히고 목포대, 목포시는 전남도의 전략적 판단을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김 지사가 다시 한 번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 전남도가 주도해 공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2025학년도 입시요강이 발표되는 5월 말까지 전남 의대 신규 배정 200명을 건의하고 공모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30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모 방식으로 국립의대 입지를 결정, 정부에 (특정 대학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모 방식에 반대하는가 하면, (지사가) 전략적으로 판단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략적 판단은 도민 신뢰를 받기 어렵고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남도가 의견을 제시하라고 한) 대통령 말씀과 국무총리 담화문 등을 감안하면 공모하지 않고 바로 (정부에 특정 대학을) 추천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지역갈등을 조장 할 수 있고 도지사의 법적 권한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공모에 반대하는 순천시에 대한 공모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남도 안팎의 해석이다.

김 지사는 “정부가 5월 대입 입시요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남 국립의대에 200명을 배정해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라며 전남 국립의대 정원 확보에 도민과 정치권이 힘을 합쳐 줄 것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2021년 전남도가 실시한 의대 관련 용역 결과 공개 의향과 관련, “당시는 국립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용역”이라며 “용역 결과가 공개됐을 경우 전남도 행정 불신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공개 불가 방침을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최근 다녀온 유럽 순방과 관련, “베스타스, 머스크와 해상풍력 터빈공장 설립을 위한 약 3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 체결,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설 시찰, 지자체 최초 유럽 관광 설명회 등의 성과를 냈다”며 “이번 순방을 통해 전남 해상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약취저감시설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덴마크 오펜사항을 롤모델로 해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에 배어링, 변압기 등 부품업체와 타워, 하부구조, 케이블 등 연관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 해상풍력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도시공원 24곳 새롭게 태어난다

광주시, 공원조성사업 현장 설명회...공공기여 2조895억 확정

광주 도심에 공원 24곳이 새롭게 태어난다. 시민 1인당 공원면적도 2배로 늘어난다. 2017년부터 시작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사업 성과로, 도시공원 일몰제로 자칫 사라질 뻔한 숲과 공원을 최대한 지켜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광주시는 지난 30일 영주체육관 내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새롭게 태어난 24개 공원’을 주제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광주시가 추진하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두 가지 방향이 강조했다. 광주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재정공원(15곳)과 민간자본을 활용해 조성하는 민간공원(9곳) 특례사업이다.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자체예산 5000억원을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했으며, 부족한 재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특례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타 사·도의 모범 행정으로 꼽힌다. 시민, 사회, 공무원, 관련 전문가들이 민관협치(거버넌스)를 이뤄 시민참여와 공감행정을 보여줬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공원면적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평균 공원면적 비율은 80.1%인데 비해 광주시는 90.4%의 공원면적을 확보했다.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 최초로 민간사업자의 수익 상한을 설정해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공익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도 큰 특징 중 하나다.

특히 논란이 일었던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신속·투명·공개’ 3대 원칙에 따라 개발행정의 전 과정을 공개해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완료되면 10개 공원지구에서 광주시가 기부채납 받게 될 공공기여액은 토지·시설을 합산해 2조89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원조성이 완료되는 2027년이면 광주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6.3㎡에서 12.3㎡로, 2배 가량 대폭 늘어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공원을, 숲을 지키는 사업”이라며 “특히 중앙공원1지구는 행정에서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자 및 시민사회와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는 등 공개·투명·신속 3대 원칙에 따라 특례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내일(my job)이 빛나는 광주일자리 박람회’ 지난 30일 광주시 북구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열린 ‘내일(my job)이 빛나는 광주일자리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 공고 등을 살펴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광주 0.91%·전남 0.58% ↑

국토부 공시...공동주택은 광주 3.17%·전남 2.27% 하락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검증 거쳐 6월27일 조정 공시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광주와 전남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상승한 반면 공동주택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0.91%, 0.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7만5923호 공시가격을 5개 자치구별로 지난 30일 공개했다. 광주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91% 상승했으며, 자치구별로 동구 1.01%, 서구 1.28%, 남구 1.10%, 북구 0.24%, 광산구 1.19% 올랐다.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 6만7017호(88.27%),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7335호(9.66%), 6억원 초과 주택 1571호(2.07%) 등 이었다. 최고가는 동구 운림동 주택으로 18억 5000만원이었으며 최저가는 광산구지

평동 320만원이었다.

또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광주시 공동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17%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동구 3.1%, 서구 2.8%, 남구 4.0%, 북구 2.9%, 광산구 3.2% 하락했다.

전남도도 이날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만여 호 공시가격을 22개 시군별로 결정·고시했다. 전남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여수시 봉강동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24억에 달했다. 반면 최저가는 70만원으로 진도군 조도면 소재 주택이었다.

올해 전남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0.58% 소폭 올랐으며, 시군별로는 함평군 1.44%, 고흥군 1.14%, 화순군 0.85%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소폭 상승한 요인은 당초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63.6%로 계획했으나 정부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53.6%)으로 동결한 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27% 하락했다.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에,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에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검증과정을 거친 후 6월 27일 조정 공시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화순 백신특구, 펩타이드 첨단신약 원천기술 개발 추진

화순 백신산업특구가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육성된다.

지난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로 공모를 통해 화순 특구를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 원천기술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과기부는 총사업비 440억원 중 260

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업계는 펩타이드를 활용한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를 60조원(2022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들어 백신과 면역치료제를 이어가는 화순백신산업특구의 차세대 특화 분야로 펩타이드를 선정했다.

전남도는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펩타이드 타깃질량 선도·후보물질 발굴 ▲펩타이드 제형화 기술 개발 ▲펩타이드 대량 합성기술 개발 ▲펩타이드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첨단신약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선대를 중심으로 성관대·서울대 등 5개 공동연구팀과 광주과학기술원·한국화학연구원 등 5개 위탁연구팀, 서울아산병원 등이 임상 자문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3. 13(수) 오후7시
- 장 소: 심미문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두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3. 6(수) 오후7시
- 장 소: 성동(심미문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점 및 비보
- 사업(점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점(사주, 공명,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문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박천석(481206-1XXXXXX)
· 최후주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라실길 40(해리리)
· 피상속인 망 박천석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년단63호로 신청하여 2024년 4월 2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5월 1일

- 상속인: 1. 원순택(510312-2XXXXXX) 울산 북구 판지길 88(우유동)
- 2. 박재원(750312-2XXXXXX) 울산 남구 문수로409번길 23, 205동 104호 (신정동, 문수로1차 아이파크2단지)
- 3. 박재원(780908-1XXXXXX) 울산 북구 판지길 88(우유동)

· 신고기간: 2024. 5. 1. ~ 2024. 7. 11.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2. 박재원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동현(1995. 03. 31.생)
· 청구인: 김영수(소송대리인 대전종합법무법인 변호사 김태범, 김지현)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4년단10160 상속한정승인결정을 2024. 4. 30.자 받았기에 민법 제1032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위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2개월 안에 아래 신고장소로 채권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서면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1일

신고장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40, 201호 (둔산동, 봉화빌딩)
변호사 김태범, 김지현 (042-489-9782)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빌딩
840㎡ 바닥628㎡ 대경관률
약국, 의료기관 4개입주

월 3천4백만원
매가78억

은행 36억5천,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

지분임야

바로 삽니다
010-5962-3900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매매
010-3605-5000